

농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정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변은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허철무**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농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정도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창업환경을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으로 구분하고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를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253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5.0과 Process macro v4.2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첫째,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 및 인지된장벽과 농산업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결정의 수준은 창업 환경과 창업 의도 사이의 관계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하는 강화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자기결정성정도가 완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탐색과 새로운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포함된 조건부과정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농산업 창업, 창업환경, 창업역량, 자기결정성정도, 창업의도

1. 서론

국회입법조사처(2022)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농업·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 경영 위기와 함께 농촌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경영주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77.3%에 달했으며,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2세였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46.8%에 이르는데, 같은 시기 전국 고령화율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2.7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농가 수는 103만 1천 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 5천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도와 비교하여 농가수는 10.4%, 농가인구는 23.9%가 감소했다. 또한, 농어업 취업자는 2021년 기준 145.8만 명으로 1976년

551.4만명인보다 73.6%가 감소하였다. 2017년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27.3만 명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세는 다소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되며 농가의 일손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는 관행 농업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농업의 탄소 중립, 기후위기적응,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현재 수준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 미래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도 농업인력 문제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매 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현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역시 크게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농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농산촌

* dbsk0101@nate.com

** cmheo@hosco.edu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정책의 방향성을 요약하자면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하여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은 34.4%에 불과하며, 귀농 귀촌 희망 사유의 대부분은 자연 속 건강한 생활(53.0%)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21.9%)이었다. 또한 윤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정책은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지원 및 확대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 규제 및 구조적 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다. 또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청년농 1만명 육성을 내걸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현 정부가 특단의 대책 없이 청년농 3만명을 배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 역시 존재하여, 단순히 청년농 3만명을 유입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충분히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산업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인구 절벽과 같은 사회 문제가 동시에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단순히 청년농만을 육성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농산업 예비 창업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2.1. 창업환경

사람들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요인에 둘러싸여 있으며 기업가 개인의 특성들은 이러한 환경요인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창업이라는 과정은 기업가 개인의 특성과 그를 둘러싼 환경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양준환, 2015).

이러한 창업환경 요인들은 연구의 주제나 연구자에 따라 분류하고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참고한 창업 의도를 관찰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 중

Luthje & Franke(2003)는 창업환경을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이라고 표현하며 기업가적 의도 모델에 통합하였다. 이때, 창업환경을 크게 인지된 장벽과 인지된 지원으로 나누었으며, 개인의 특성과 기업가정신을 대하는 태도와는 별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 실제로 창업환경은 기업가정신을 대하는 태도와 별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기업가정신을 대하는 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창업환경을 부정적으로(지원이 적고 장벽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창업 의도가 약해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창업 역량과 별개로 창업 의도를 유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Luthje & Franke의 연구 모형을 참고하여 세부 요인을 설정하였다.

2.1.1. 인지된 지원과 장벽

Luthje & Franke는 창업환경을 인지된 지원과 인지된 장벽으로 세분화하면서도 자세한 조작적 정의나 하위 요소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론과 가설, 설문 내용 등을 통해 그들의 관점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우선, 그들의 연구는 MIT 학생들을 창업으로 유도하기 적합한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향성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따라서, 창업환경은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예비 창업가가 창업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지한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시스템의 세부적인 요소로는 교육과 컨설팅, 정책과 법률,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자금 확보와 신사업 확장의 용이성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uthje & Franke의 연구를 중심으로 조영조·이보영(2016)과 김나량 외(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창업환경을 ‘예비 창업가의 개인적인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와 별개로, 예비 창업가가 환경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2.2. 창업역량

역량이라는 용어는, 경영학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으며, 연구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역량은 원래 교육의 관점에서 수습 교사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Boyatzis(1982)의 주도하여 경영의 측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

에서는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우수한 특성을 구별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원의 필수적인 개인적 특성, 기술, 지식 및 동기를 통해 우수한 경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Boyatzis(1982)는 역량을 동기와 특성, 사회적 역할과 자아 개념, 그리고 역할 전환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반면, 영국에서는 이와 달리 역량을 특정 근무자의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업무 혹은 노동자가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나 결과물과 같은 행동으로 설명했다(Mitchelmore & Rowley, 2010).

이외에도 최근 국내의 연구자 신향숙(2021)은 창업가의 역량은 직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으로 창업가 개인의 경험, 훈련, 교육, 가족 배경 및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성격특성, 기술 및 지식을 포함하는 상위수준의 특성으로 간주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업 역량에 대한 해석은 시대나 국가, 연구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창업 의도의 정의와 모델을 탐구하기 위해 최근 5개년 한국 사회에서 창업역량을 창업의도와 연관 지어 바라보는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았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의 창업역량에 대한 관점

연구자	연구 관점	연구대상
변지유 외 (2021)	창업 역량의 일부인 기업가정신역량은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 관측 변수는 계획-네트워킹-경험을 통한 학습 역량, 기회 가치 창출 역량, 자기개발 역량, 자원조달 역량, 기술활용 역량 순으로 변화량의 크기를 보였다.	중부권 5개 대학 재학생과 K 대학의 S 교과목 수강생
이재열·하태관 (2022)	창업역량을 3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 보았으며, 각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자금조달 역량 중에서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고글리, 글로벌 물가 인상,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비대면 일상화 등의 사회구조 영향으로 보았다.	만 40세~64세 이하의 시니어
김정수 (2022)	창업에 대한 내적 통제감을 향상시켜 역량강화와 창업민족을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보았으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함. 하위 변인으로는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을 두었다. 창업지역역량의 하위요인인 기술적역량, 창의적역량과 창업의도 간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
강신수 외 (2020)	대인관계의 여러 역량 중에 자기개발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 부분을 고려하여 관계형성역량을 재 정의하고 관계형성역량 정도에 따라 창업의도 차이를 분석, 기 창업가와 창업의도가 전혀 없는 그룹간의 관계형성역량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으며 관계형성역량이 창업가에게 중요한 역량임을 증명하였다.	창업 동아리 활동하는 대학생과 창업 경력 3년 미만인 창업가

이윤석 (2021)	개인이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문제해결역량, 의사소통역량, 네트워킹역량, 팀빌딩역량으로 세분하였음. 그러나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	전국 단위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한 대학생
강병승 (2020)	창업 역량을 경영 역량, 기업가 역량, 대인관계 역량으로 구분, 각각 '창업에 필요한 관리, 기술, 및 마케팅 능력', '혁신적이고 위험을 감수하여 창업할 수 있는 성향',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으로 정의함. 연구 모형과 가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업 역량이 직접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영향을 일부 미치며,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 및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40~65세까지의 시니어
신향숙 (2021)	창업역량을 개인역량(리더십,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의사결정)과 실무역량(경영전략, 마케팅, 사업계획서)으로 구분, 분석 결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을 매개하여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0~65세 미만까지의 액티브 시니어 연령층

최근 5개년 간 창업역량과 창업의도를 주제로 한 연구를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 네트워킹, 관계 형성과 같이 대인관계와 밀접한 역량이 창업역량의 하위요인으로 주되게 채택되었다. 또한 창업역량을 창의성이나 위험감수성, 문제해결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인 영역을 창업가 개인의 역량으로 분류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 경영 및 마케팅 역량과 같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거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기술이나 실무 영역으로 분류하여 하위요인으로 세분하여 설정하는 등의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창업과 관련된 최근 연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창업역량을 영역별로 세분하여 하위요인을 집중하여 보기보단, 창업역량에서 주되게 연구된 하위요인들을 선정하여 영역의 구분 없이 연구하려고 한다. 따라서, 개인의 창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과 최근 5개년간 가장 주되게 연구된 대인관계 역량 중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 그리고 창업과 창업 이후 경영 과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마케팅 역량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3. 자기결정성정도

개인의 행동과 성격 발달에 대한 자기조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Ryan & Deci에 의해 체계화된 개념으로, 인간의 동기를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동기부여에 기초하여 활동한다고 간주하는 내재적 동기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시이론(Macro-Theory)이다.

자기결정성은 연구자와 연구 시기에 따라 Ryan & Deci이 체계화한 미니이론(Mini-Theory)의 개수를 4개 혹은 5개, 6개로 보며, 이는 1985년 그들의 저서에서 언급한 인지평가이론, 유기적통합이론, 인과지향성이론을 기반으로 시간이 흐르며 기본심리욕구이론, 목표내용이론, 관계동기이론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Ryan & Deci(2000)에 따르면,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은 내재적 동기의 가변성을 설명하기 위한 SDT의 하위 이론으로, 내재적 동기는 개인이 내재적 동기를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환경에 있을 때 개인에게 내재적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즉, 내재적 동기는 환경이 허락할 때 발현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Ryan & Deci는 내재적 동기를 이를 촉진하는 요인인 사회적, 환경적(혹은 맥락적; context) 요인과 내재적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외부 자극이 인간의 내재된 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동기 부여 그 자체, 더 나아가 동기에서 이어진 행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성상 자기결정성 이론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창업학에서 역시 자기결정성 이론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양질의 창업 교육, 창업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가 창업가의 동기와 의도, 창업 실행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자기결정성의 다양한 미니이론을 적용하여 자기결정성을 창업과 연관지어 연구하였다. 최근 국내 연구 동향에서는 창업의도와 자기결정성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 자체가 많이 줄어든 추세이며, 특히 농산업 창업에 있어서는 창업과 별개로 농업 자체를 자기결정성과 연관 지은 연구 자체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없는 실정이다.

Ryan & Deci(2000)는 인지평가이론과 유기적통합이론의 구성 요인으로 세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제시했다. 이때 기본 욕구란 생리적 욕구이든 심리적 욕구이든 간에 충족되면 건강과 웰빙으로 이어지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질병과 불행을 초래하는 활력 상태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지속적인 eudaimonia(행복이나 웰빙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그리고 관계성(relatedness)에 대한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 유능감은 사람들이 자신이 유능하고자 하는 욕구로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한다(Ryan & Deci, 2000). 셋째,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이며, 다른 개인들과 사회

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다(김성환 외, 2015).

연구에 따르면 행동 중에 유능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맥락적 사건(예: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보상)이 해당 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적의 도전, 효과성을 촉진하는 피드백, 비하적인 평가로부터의 자유가 모두 내재적 동기를 촉진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성과 피드백은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반면 부정적인 성과 피드백은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지각된 역량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능감은 귀인적 관점에서 인지된 인과관계의 근원 혹은 자율성을 동반하지 못한다면 즉, 스스로 결정한 경험을 통해 유능감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향상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유능감과 자율성을 동시에 즉각적인 환경적 지원 혹은 인지된 유능감과 자율성을 위한 사전의 발달적 지원의 성과인 개인의 역량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 환경적 사건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서 자율성은 유능감보다는 통제와 연결되어(대조되어) 연구되었는데, 이때 외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지된 인과관계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경우 자율성이 감소하여 내재적 동기를 저해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유형적 보상뿐만 아니라 위협, 마감일, 지시, 압박 평가, 부과된 목표도 유형적 보상과 마찬가지로 인지된 인과관계의 근원이 외부로 향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선택권, 감정의 인정, 자기 주도적 기회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처럼 자율성과 유능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것처럼, 관계성 역시 내재적 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에 따르면, 경계심과 관계성에 의한 환경에서도 내재적 동기 부여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인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자율성과 유능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과 별개로 내재적 동기 부여가 낮아졌다. 따라서 Ryan & Deci(2000)는 내재적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안전한 대인관계 기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연구 동향과 내재적 동기를 환경과 연관 짓는 인지평가이론의 특성, 본 연구의 주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결정성 이론의 다양한 미니이론 중 인지평가이론을 적용하여 자기결정성 정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4. 창업의도

Ajzen(1991)은 의도를 하고 싶은 행동을 실제 하려는 의도 수준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는데, 의도는 사람들이 자각하는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미래에 나타나게 될 기대되는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도가 바탕이 된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s)는 창업을 위한 첫 단계로써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토대의 역할 때문에 창업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창업 행동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는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Hallam et al.(2008)의 ACE(A Model for Accelerating Collegiate Entrepreneurship)모델이 있다(한미경, 2022. 재구성).

이러한 창업의도는 개인의 성격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조사하려는 시도에서 발전하였다. Crant(1996)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성격과 기업가정신을 연결시키는 연구에 대한 비판이 늘었으며, 그로 인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로 성격 특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거의 발표되기보다 창업가적 잠재력, 창업 동기와 같은 창업 과정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동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Crant는 주도성(적극적인 성격) 척도가 성격 특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 성격이 창업 의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Crant(1996)는 창업가정신의 구체적인 전략과 주제(예: 새로운 벤처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의 차이를 두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사업을 소유할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창업 의도를 정의하였다.

또한 크루거(1993b)가 기업가적 의도가 새로운 조직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이라고 주장한 것과 Gartner et al.(1994)이 기업가정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창업 의도를 발달해가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창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자기결정성 등과 같은 본 연구의 타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도성을 창업 의도와 연관짓는 Crant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발전시켜, 창업가가 스스로 판단하는 장래에 창업을 하려는 계획과 그 정도를 창업 의도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의 영향력을 탐구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창업환경을 인지된 장벽과 인지된 지원으로 구분하고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성정도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창업환경 및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가 자기결정성정도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정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을 독립변수로, 자기결정성정도를 조절변수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조절모형을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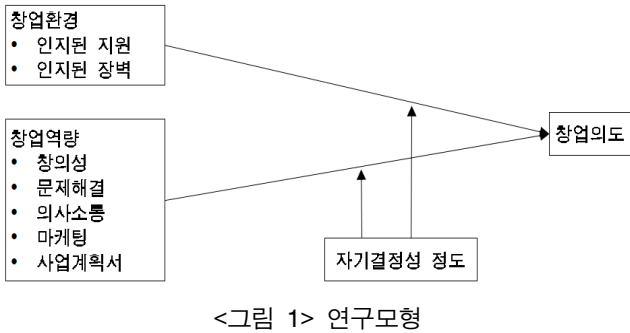
- H1.1: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창업환경의 인지된장벽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창업역량의 창의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창업역량의 문제해결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5: 창업역량의 의사소통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6: 창업역량의 마케팅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7: 창업역량의 사업계획서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1: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2: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된장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3: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4: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문제해결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5: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6: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7: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위 가설을 기반으로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결정성정도의 조절효과를 추론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맞는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농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총 302건의 설문조사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성실하지 않은 49건을 제외한 253건을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Ver.25.0과 PROCESS macro v4.2를 사용하였다. SPSS를 이용한 빈도분석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측정변수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변수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측정 하였고, 다중회귀분

석으로 연구가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의 단순조절모형인 Model 1을 이용하여 조절효과 검증과 조절변수의 값에 따른 독립변수의 조건부효과와 John-Neyman기법을 이용한 조절변수의 유의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조절모형인 Model 1을 이용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구성개념은 실제로 관찰되거나 추상적으로 이해되는 일련의 특성 또는 추상적 의미이며 특정 이론이나 연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개념이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개념 혹은 구성개념을 경험적이고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원래의 속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이훈영, 2012). 조작적 정의는 연구목적과 측정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조작적 정의 중 연구에서 변수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도록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하위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독립 변수	창업 환경	인지된 자원	예비 창업가의 개인적인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와 별개로 예비 창업가가 환경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한 정도	Luthje & Franke (2003)
		인지된 장벽		
	창업 역량	창의성	성공적인 농산업 창업을 위해 필요한 예비 창업가의 지식, 능력, 기술	신향숙 (2021)
		문제해결		
		의사소통		
조절 변수	자기 결정성 정도	자율성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압력이 없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	이성택 (2018)
		유능성		
		관계성	자신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행동	
종속 변수	창업 의도		예비 창업자가 장래에 스스로 기업을 설립하려는 계획과 그 정도	조영주·이보영 (2016)

3.3.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창업환경의 측정을 위하여 인지된지원 5문항, 인지된장벽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창업환경의 측정을 위하여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사업계획서 각각을 5문항씩 총 25문항을 구성하였고, 조절변수인 자기결정성정도의 측정을 위하여 9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의 측정을 위하여 5문항을 구성하여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배경변수 별 특성에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소재지, 월 소득, 직업, 창업 예정 시점, 자금 조달 수단, 예상 주요 창업업종 등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4. 조사대상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253명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소재지, 월 소득, 직업, 향후 창업 예정 시점, 자금조달 수단, 창업시 예상 주요 업종 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		
	빈도	%	
성별	남성	177	70
	여성	76	30
연령	20대	29	11.5
	30대	36	14.2
	40대	61	24.1
	50대	111	43.9
	60대 이상	16	6.3
결혼 여부	기혼	185	73.1
	미혼	68	26.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	9.1
	전문대학 졸업	24	9.5
	대학교 졸업	94	37.2
	대학원(재학) 졸업	112	44.3
소재지	서울경기인천	206	81.4
	대전세종충남충북	17	6.7
	광주목포전남전북	3	1.2
	부산대구창원경북경남	17	6.7
	강원	10	4.0
	제주		
월 소득	200만원 미만	37	14.6
	200~300만원 미만	42	16.6
	300~500만원 미만	51	20.2
	500~700만원 미만	51	20.2
	700~1,000만원 미만	30	11.9
1,000만원 이상	42	16.6	
향후 창업 시점	1~2년	29	11.5
	3~5년	47	18.6
	6~7년	59	23.3
	8~10년	50	19.8
	11~20년	31	12.3
	21년 이상	37	14.6
주요 자금조달 수단	자신	131	51.8
	부모	13	5.1
	친구	1	0.4
	투자사	17	6.7
	정부지원	91	36
	기타		
창업 시 예상 주요 업종	작물 재배	72	28.5
	농식품 가공	33	13
	농식품 유통	74	29.2
	농기계 관련 산업	10	4
	농업 컨설팅 관련	57	22.5
	기타	7	2.8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77명(70%), 여성이 76명(30%)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1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61명(24.1%)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보면, 기혼자가 185명(73.1%)로 더 많았으며, 미혼자는 68명(26.9%)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재학) 졸업이 112명(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94명(37.2%)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이 206명(8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이 17명(6.7%)이었다. 월 소득별로는 500~7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이 각각 51명(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000만원 이상이 42명(16.6%)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창업 시점별로는 6~7년 후가 59명(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5년 후가 47명(18.6%)이었다.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는 자기조달이 131명(5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부지원이 91명(36.0%)로 나타났다. 창업 시 예상 주요 업종별로는 작물 재배가 72명(2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식품·유통이 74명(29.2%)으로 조사되었다.

3.5.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는 측정이 의도한 구성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가 측정하려는 개념이나 속성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을 표시하는 지표이다(이훈영, 2012). 의도하는 연구 개념을 측정도구인 설문지가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타당도는 추출된 요인이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기본 구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 테스트 및 Bartlett의 구형도 테스트를 사용하였다. KMO 검정은 데이터의 샘플링 적합성을 측정하고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KMO 검정은 데이터의 샘플링 적합성을 측정하고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KMO 테스트는 0과 1 사이의 값을 생성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0.6 이상의 KMO 값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KMO 측정치가 .909(90.9%)으로 산출되어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사용된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변수 쌍의 상관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테스트는 데이터 세트에 있는 변수의 상관 행렬이 변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테스트하여 상관관계행렬 상의 모든 상관들이 유의적이면 데이터가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타당한 데이터임을 말한다.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변수들 사이에 관계가 있으므로 요인 분석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성을 뒷받침하였다. 전반적으로 KMO 검정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탐색적 요인 분석의 유효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높은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대한 유의한 결과는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하고 추출된 요인이 관심 있는 기본 구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단계는 요인을 더 해석하기 쉽도록 회전시키는 것이다. 요인 회전은 각 요인에 대한 변수 부하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출된 요인을 회전시켜 요인 구조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직교 회전의 한 종류인 varimax 회전을 사용하여 회전하였다. 고유값이 1보다 크고 공통성이 .5 이상이고 요인 부하가 .5 이상인 9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누적 설명 분산은 69.317%로 나타났다. 이것은 추출된 요인이 데이터 세트의 분산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4>에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에서 추출된 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평균을 요인 값으로 산정하여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표 4> 요인분석 결과

	사업계획서	자기결정성	창업의도	문제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인지된지원	마케팅	인지된장벽
사업계획서3	.842	.077	.232	.145	.176	.112	.166	.152	.048
사업계획서4	.819	.101	.212	.169	.126	.083	.126	.229	.066
사업계획서5	.803	.144	.243	.118	.172	.112	.112	.135	.057
사업계획서1	.796	.109	.220	.108	.113	.128	.074	.212	.062
사업계획서2	.785	.079	.227	.170	.211	.088	.171	.216	.065
자기결정성4	.066	.754	.050	.172	.095	.179	.052	.102	.052
자기결정성2	.093	.708	.141	.159	.081	.141	.059	-.023	.049
자기결정성3	.009	.703	.131	.137	.045	-.086	.071	.025	.067
자기결정성5	.051	.690	.024	.206	.088	.151	.082	.022	.125
자기결정성6	.172	.641	-.037	.173	.039	.290	-.013	.120	.137
자기결정성9	.058	.628	.054	.099	.120	.190	.041	.123	.001
자기결정성7	.167	.623	.011	.106	.175	.269	-.004	.016	.154
자기결정성1	-.026	.612	.223	.005	.118	-.144	.226	.040	.158
창업의도2	.273	.144	.829	.127	.132	.110	-.009	.150	.076
창업의도1	.097	.101	.828	.103	.120	.172	-.026	.175	-.082
창업의도3	.255	.090	.824	.094	.141	.060	.056	.178	.044
창업의도4	.221	.042	.813	.074	.147	.067	.165	.127	.015
창업의도5	.230	.184	.731	.102	.213	-.040	.143	.024	.036
문제해결2	.156	.182	.113	.786	.120	.185	-.022	.017	.048
문제해결3	.022	.139	.075	.781	.081	.210	.005	.089	.075
문제해결1	.106	.146	.111	.682	.249	.201	.100	.139	-.066
문제해결5	.151	.257	.033	.677	.052	.148	.075	.256	.013
문제해결4	.172	.276	.094	.664	.128	-.008	.041	.002	.078
창의성1	.149	.168	.210	.110	.777	.147	.067	.176	.061

창의성2	.198	.186	.210	.140	.762	.193	.164	.038	.080
창의성3	.205	.154	.212	.161	.752	.114	.135	.186	.089
창의성4	.214	.215	.127	.397	.575	.133	.104	.089	.044
창의성5	.180	.145	.200	.485	.521	.031	.051	.110	.050
의사소통2	.046	.114	.121	.129	.051	.806	.033	.094	.015
의사소통1	.002	.132	.025	.088	.108	.776	.083	.044	.130
의사소통3	.267	.243	.118	.240	.273	.629	.053	.154	.074
의사소통5	.183	.330	.103	.258	.027	.606	.052	.097	.080
의사소통4	.279	.265	.065	.257	.306	.584	.062	.066	.029
인지된지원5	.079	.105	.110	.024	.105	.049	.824	.033	.089
인지된지원4	.078	.094	-.006	.039	.080	.026	.822	.046	.009
인지된지원3	.104	.031	.068	.053	.050	.101	.781	.139	-.076
인지된지원2	.238	.144	.064	.044	.093	.001	.697	.150	.091
마케팅2	.337	.129	.269	.172	.214	.155	.125	.702	.085
마케팅4	.350	.063	.258	.124	.182	.112	.166	.687	.093
마케팅1	.340	.156	.240	.175	.120	.152	.215	.653	.080
마케팅3	.412	.137	.255	.130	.166	.112	.145	.652	.011
인지된장벽3	.034	.085	.001	.037	.023	.144	.072	.026	.727
인지된장벽2	.160	.014	.023	.032	.195	.094	.042	.151	.685
인지된장벽4	.008	.042	.126	.006	.006	.144	.410	.052	.648
고유값	4.684	4.491	4.173	3.708	3.162	3.125	3.048	2.449	1.661
설명변량	10.646	10.206	9.484	8.427	7.186	7.102	6.927	5.565	3.774
누적설명변량	10.646	20.851	30.335	38.762	45.948	53.050	59.977	65.542	69.317
KMO 측도=0.928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12028.3511, 자유도=946, p=0.000									

3.6.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는 특정 구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도구 또는 일련의 항목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다(이훈영, 2012). 측정도구인 설문문항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테스트하여 얻은 결과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내적 일관성 신뢰성으로 그 정도를 평가한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Cronbach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계수 값 1은 완벽한 내부 일관성을 나타내고 0 값은 내부 일관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Cronbach alpha를 계산하려면 계수, 항목 간 상관 행렬은 항목 집합의 내부 일관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9 이상이면 매우 우수한 신뢰도, 0.8~0.9이면: 우수한 신뢰도, 0.7~0.8:이면 허용 가능한 신뢰도, 0.6~0.7이면 의심스러운 신뢰도, 0.5~0.6이면 낮은 신뢰도, 0.5 미만이면 수용할 수 없는 신뢰도로 해석한다.

따라서 Cronbach의 alpha 계수는 측정 도구 내 항목의 내부 일관성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표 5>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같아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는 .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5> 신뢰도 분석

구성개념	하위변인	Cronbach's α
창업환경	인지된 지원	.796
	인지된 장벽	.735
창업역량	창의성	.882
	문제해결	.855
	의사소통	.853
	마케팅	.906
	사업계획서	.949
자기결정성정도		.870
창업의도		.926

IV. 분석 결과

4.1.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상관 계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상관 계수의 범위는 -1에서 +1까지이며, 여기서 -1은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 0은 상관관계가 없음, +1은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pm 0.81 \sim \pm 1.0$ 범위이면 상관관계 크기가 매우 크고, $\pm 0.61 \sim \pm 0.80$ 이면 크기가 강하고, $\pm 0.41 \sim \pm 0.60$ 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pm 0.21 \sim \pm 0.40$ 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pm 0.00 \sim \pm 0.20$ 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pm 0.91 \sim \pm 1.0$ 범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이일현, 2014). 상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pm 0.91 \sim \pm 1.0$ 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관계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선형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변수들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지원	장벽	창의성	문제 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사업계획서	자기결정성	창업의도
지원	1								
장벽	.244***	1							
창의성	.498***	.208**	1						
문제 해결	.317***	.151*	.642***	1					
의사소통	.365***	.210**	.588***	.667***	1				
마케팅	.480***	.220***	.596***	.568***	.564***	1			
사업계획서	.464***	.204**	.630***	.537***	.546***	.719***	1		
자기결정성	.441***	.168*	.555***	.556***	.609***	.497***	.472***	1	
창업의도	.433***	.317***	.613***	.527***	.489***	.571***	.591***	.537***	1

* $p < .05$, ** $p < .01$, *** $p < .001$

4.2.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창업환경의 하위변수로서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 그리고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로서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산업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창업의도를 선택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VIF 값이 10보다 작은 2.48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하위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SPSS는 회귀계수 산출 시 양측검증의 p값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설이 방향성 가설인 경우에는 단측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측검정의 p값은 양측검증의 p값의 1/2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모두 방향성 가설이므로 SPSS에서 산출된 p값의 1/2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결혼 여부, 학력, 월 소득 및 향후 창업 시점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는 범주형 변수이나 크기 개념이 있으므로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의 영향을 고려하는 분석 방법이다. 조절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절분석은 평균 중심화와 관계없이 분석의 초점이 조절효과에 있으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절변수 값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Andrew F. Hayes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건부 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조절변수의 유의 영역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John-Neyman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조절 효과가 유의한 조절변수의 유의 영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조절변수의 값이 변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4.2.1.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론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원(B=.179 p=.003), 장벽(B=-.141 p=.008), 창의성(B=.253 p=.000), 문제해결(B=.160 p=.036), 마케팅(B=.141 p=.012) 및 사업계획서(B=.132, p=.014)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소통(B=.007, p=.466)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환경과 의사소통을 제외한 창업역량이 높아질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1.1, H1.2, H1.3, H1.4 H1.6 및 H1.7은 채택되었고, H1.5는 기각되었다.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의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창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의성(β =.242)이며, 마케팅(β =.157), 사업계획서/인지된지원(β =.154), 문제해결(β =.120), 인지된장벽(β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순서로 부터 창업의도에 창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장벽이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창업역량이 창업환경보다 더 크게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창업자들이 창의성과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및 교육과정 개선,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은 창업 전 단계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의 전체 변량의 5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est 결과는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의도의 53.4%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도				
	B	β	t	p	VIF
(constant)	3.515		13.809	0.000	
결혼여부	-.139	-.070	-1.308	0.096	1.462
학력	-.053	-.056	-1.072	0.142	1.432
월 소득	.048	.089	1.579	0.058	1.629
향후창업시점	-.102	-.180	-3.893	0.000	1.107
인지된지원	.179	.154	2.803	0.003	1.564
인지된장벽	-.141	-.112	-2.435	0.008	1.092
창의성	.253	.242	3.547	0.000	2.397

문제해결	.160	.120	1.812	0.036	2.278
의사소통	.007	.006	.086	0.466	2.174
마케팅	.141	.157	2.257	0.012	2.505
사업계획서	.132	.154	2.211	0.014	2.512
R ²	.534				
F	25.085***				

*p<.05, **p<.01, ***p<.001

4.2.2. 조절효과 분석

조절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지를 검증하는 분석방법이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모형을 통해 조절효과의 존재 여부와 정도를 파악한다. 평균중심화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뺀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고 해석을 간편하게 한다. 평균중심화된 모형은 R²과 MSE 값이 원 자료를 이용한 모형과 동일하므로 적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절변수의 값이 0인 경우에는 독립변수의 순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0은 원 자료에서 실제로 나타난 값일 수 없으므로 해석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추론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창업환경과 창업역량, 조절변수인 자기결정성정도를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모형을 재모수화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절분석은 조절효과의 유의성만을 보여주지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한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방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변수 값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가 조절변수 값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위계적 회귀분석으로는 어느 구간에서 유의한 조절변수의 범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절변수 값에서 우연성 요인(chance component)이 작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절변수의 전환점을 조사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역역을 구분하는 상호작용항 탐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절변수의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호작용 탐색에는 자주 이용되는 방법은 특정 값 선택이다. 이 방법은 조절변수의 특정 값(조절변수의 평균값, 평균값±표준편차)을 선택하고 해당 값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조건부효과를 추론하는 과정이다.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값을 세 가지 레벨(저수준, 중간수준, 고수준)로 나누어 초점 예측 변수(focal predictor)의 조건부 효과(단순 기울기)를 추론하였다. 이를

위해, 저수준은 조절변수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 고수준은 조절변수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조건부 효과를 추론하여, 그 결과를 추출된 자료를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JN(Johnson Neyman)방법은 특정한 값으로 인한 조절변수 값의 자의적 선택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조절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조절변수 값의 유의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에서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4.2.2.1 자기결정성정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을 포함하여 조절변수인 자기결정성정도를 독립변수에 추가 투입하여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율성추구, 경제적성취 및 자아성취, 창업인식, 사업가에 대한 사회적인식 및 창업기회인식, 조절변수인 직무만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검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추가됨으로써 1.3%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001<.05$) 모형의 설명력은 54.6%이고, 자기결정성정도가 높을수록($B=.277$)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기결정성정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도				
	B	β	t	p	VIF
(constant)	3.467		13.745	0.000	
결혼여부	-.149	-.075	-1.424	0.078	1.464
학력	-.043	-.045	-.870	0.193	1.442
월 소득	.048	.089	1.597	0.056	1.629
향후창업시점	-.097	-.171	-3.723	0.000	1.113
인지된지원	.152	.131	2.374	0.009	1.607
인지된장벽	-.138	-.109	-2.405	0.008	1.093
창의성	.224	.214	3.139	0.001	2.457
문제해결	.120	.090	1.356	0.088	2.349
의사소통	-.057	-.043	-.644	0.260	2.359
마케팅	.126	.141	2.039	0.021	2.526
사업계획서	.136	.159	2.303	0.011	2.513
자기결정성정도	.277	.159	2.593	0.005	2.002
R ² (F)	.546(24.101***)				
ΔR^2 (F)	.013(6.722*)				

* $p<.05$, ** $p<.01$, *** $p<.001$

4.2.2.2 창업환경 및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자기결정성정도의 조절효과

창업환경 및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변수인 자기결정성정도의 독립변수 각각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성정도의 창의성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245, p=.009$), 문제해결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340, p=.002$),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348, p=.001$), 마케팅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202, p=.008$),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281, p=.000$)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지된지원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174, p=.098$), 인지된장벽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106, p=.316$)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을 유의적으로 조절하나 창업환경과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2.3, H2.4, H2.5, H2.6 및 H2.7은 채택되었고 H2.1과 H2.2는 기각되었다.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 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 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문제해결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 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 정도가 커질수록 문제해결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 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 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부(-)의 방향으로 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 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 정도가 커질수록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 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 정도가 커질수록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과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으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 결정이 창업역량과 창업 의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창업 환경과 창업 의도 사이의 관계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창업환경 및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자기결정성정도의 조절효과

	창업의도						
	B	B	B	B	B	B	B
(constant)	3.420	3.465	3.392	3.391	3.323	3.388	3.356
결혼여부	-.131	-.150	-.148	-.149	-.129	-.138	-.139
학력	-.042	-.043	-.030	-.026	-.016	-.032	-.033
월 소득	.050	.046	.043	.044	.041	.045	.052
향후창업시점	-.100	-.096	-.098	-.103	-.100	-.097	-.099
인지된지원(x_1)	.128	.155	.148	.166	.152	.151	.145
인지된장벽(x_2)	-.131	-.163	-.132	-.136	-.130	-.132	-.127
창의성(x_3)	.213	.223	.198	.202	.204	.211	.217
문제해결(x_4)	.120	.113	.095	.074	.094	.082	.078
의사소통(x_5)	-.047	-.050	-.034	-.040	-.064	-.030	-.029
마케팅(x_6)	.126	.127	.111	.098	.113	.101	.124
사업계획서(x_7)	.131	.137	.136	.131	.133	.139	.104
자기결정성정도(m)	.256	.276	.216	.244	.262	.224	.182
$x_1 \times m$.174						
$x_2 \times m$.106					
$x_3 \times m$.245**				
$x_4 \times m$.340**			
$x_5 \times m$.348**		
$x_6 \times m$.202**	
$x_7 \times m$.281***
R ² (F)	.552 (22.622***)	.548 (22.325***)	.559 (23.319***)	.564 (23.741***)	.567 (24.080***)	.560 (23.363***)	.570 (24.366***)
ΔR^2 (F)	.005 (2.755)	.002 (1.008)	.013 (6.866**)	.017 (9.350**)	.021 (11.350**)	.013 (7.124**)	.023 (13.031***)

*p<.05, **p<.01, ***p<.001

자기결정성정도가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결정성정도의 특정 값 선택을 통하여 조건부효과를 추론하였다. 특정 값은 평균-표준편차(3.502)를 저수준으로, 평균(4.010)을 중간수준, 평균+표준편차(4.519)를 고수준으로 선택하였다. 조건부효과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유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초점에측 변수인 창업역량의 조건부효과를 시각화시키기 위한 data를 추출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표 10>에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역량의 조건부효과를 제시하였다. 창의성은 자기결정성정도의 중간수준과 고수준, 문제해결은 고수준, 의사소통은 저수준, 마케팅은 중간수준과 고수준, 사업계획서는 중간수준과 고수준에서 조건부효과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의 조건부효과(독립변수와 창업의도 간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

는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 중 강화작용을 한다.

의사소통의 경우 저수준서 부(-)의 효과가 나타나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의 조건부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는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 중 완화작용을 한다.

JJN 방법에 의한 창의성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3.718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가 3.718이상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정도의 척도 ‘그렇다’ 이하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데이터 중 79.051%만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2.680과 4.214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가 2.680이하에서는 부(-) 효과가 4.214이상에서 정(+)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기결정성이 완화작용을 높은 경우에는 강화작용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본의 3.95%가 완화작용을 30.830%가 강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3.561과 4.808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가 3.561이하에서는 부(-)의 조절효과 4.808이상에서는 정(+)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15.415%가 완화작용을 9.486%가 강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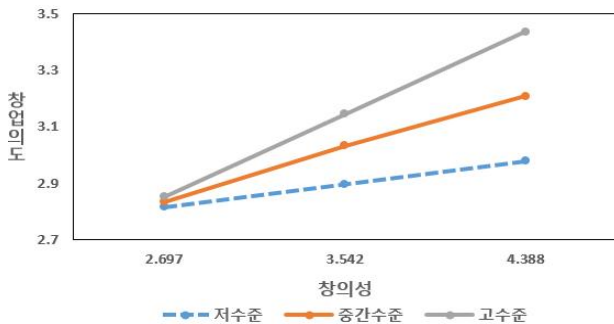
마케팅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4.012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가 4.012이상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정도의 척도 ‘그렇다’ 미만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성정도가 대체로 높을 때 만 자기결정성이 마케팅과 창업의도 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본데이터 중 35.573%만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서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3.749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가 3.749이상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정도의 척도 ‘그렇다’ 미만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성정도가 대체로 높을 때 만 자기결정성이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본데이터 중 79.051%만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역량의 조건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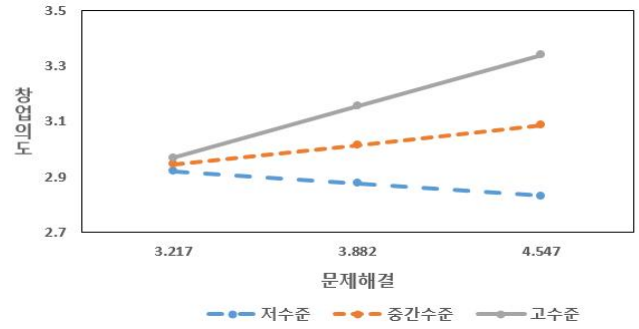
자기결정성정도	효과	LLCI	ULCI
창의성			
저수준	.097	-.071	.265
중간수준	.222	.083	.360
고수준	.346	.180	.512
문제해결			
저수준	-.067	-.276	.143
중간수준	.106	-.066	.278
고수준	.279	.079	.478
의사소통			
저수준	-.208	-.401	-.015
중간수준	-.031	-.203	.141
고수준	.146	-.062	.355
마케팅			
저수준	.018	-.127	.163
중간수준	.120	.000	.241
고수준	.223	.083	.363
사업계획서			
저수준	.041	-.090	.172
중간수준	.185	.083	.287
고수준	.329	.202	.455

자기결정성정도에 따라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그래프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의 정(+)의 조건부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는 조절효과 중 강화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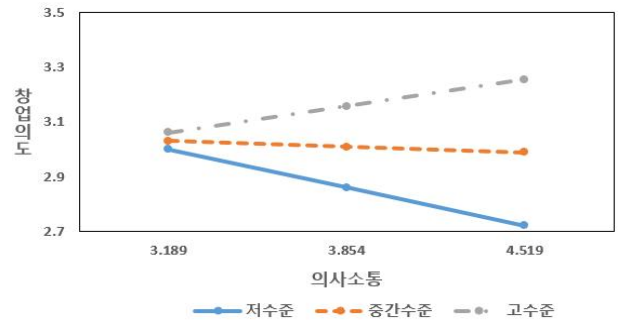
<그림 2> 창업의도에 대한 창의성의 조건부효과

자기결정성정도에 따라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그래프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의 정(+)의 조건부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는 조절효과 중 강화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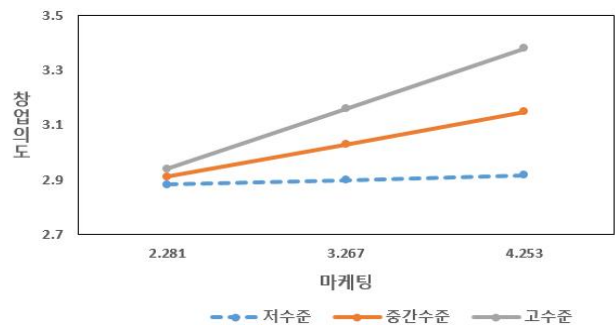
<그림 3> 창업의도에 대한 문제해결의 조건부효과

자기결정성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그래프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의 부(-)의 조건부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는 조절효과 중 완화작용을 한다.



<그림 4> 창업의도에 대한 의사소통의 조건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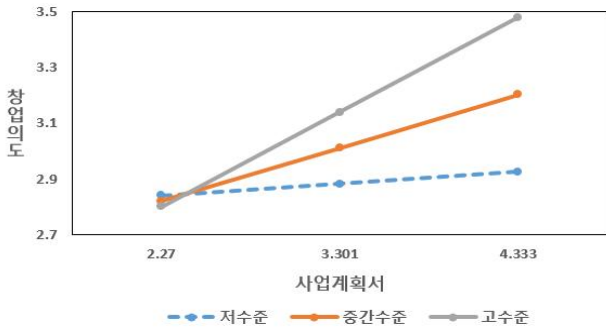
자기결정성정도에 따라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그래프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마케팅의 정(+)의 조건부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는 조절효과 중 강화작용을 한다.



<그림 5> 창업의도에 대한 마케팅의 조건부효과

자기결정성정도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그래프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

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사업계획서의 정(+)의 조건부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는 조절효과 증 강화작용을 한다.



<그림 6> 창업의도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조건부효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정도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창업역량의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창의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에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창업자들의 창의성을 강화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 및 인지된장벽과 농산업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는 자기결정의 수준은 창업 환경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하는 강화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부(-)의 방향으로 약해지는 완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무적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학문적 함의는 농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학문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모형은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과 같은 창업환경, 창의성,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및 사업 계획과 같은 창업역량의 여러 독립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을 통해 변수가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하고 농산업 부문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모형에 창업환경의 인식된지원과 인식된장벽을 독립 변수로 통합함으로써 외부 요인이 창업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농산업 창업의도에 대한 지원 및 장벽의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자기결정의 정도가 조절변수로 모델에 포함되어 동기 부여, 인내 및 자율성과 같은 창업 과정에서 개별 요인의 역할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자기결정이 모형의 다른 변수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이해하면 농산업 부문에서 창업을 촉진하고 개별 창업가를 지원하는 방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모형은 종속 변수로 농산업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으며,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와 이해 관계자는 잠재적인 농산업 창업자의 특정 요구를 해결하는 목표에 대한 관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인지된 지원/장벽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는 개인의 자기결정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개인이 자기결정 수준에 관계없이 농산업 창업을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원적이고 도움이 되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과 정책이 반드시 새로운 농업 기업의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대신 정책 입안자들은 농산업의 특정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는 지원책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예비창업자의 자기 결정 수준에 관계없이 농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 결과는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과 농산업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에 대한 창의성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해지는

데, 이는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동기부여가 되고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한 창업 기회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자기 결정권을 가진 개인이 창업기회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성공을 위해 장벽을 식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에 미치는 의사소통의 영향은 부(-)의 방향으로 약해지며, 이는 자기결정이 높은 개인이 창업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자기 결정력이 높은 개인이 창업기회를 추구할 때 외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덜 의존하고 내부 동기와 자기 효능감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결정이 높은 개인일수록 창업의도 의사 결정에서 마케팅 전략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결정력이 높은 개인들 사이에서 마케팅이 창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업계획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 결정력이 높은 개인이 창업 기회를 추구할 때 계획 및 전략적 사고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창업역량과 농산업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기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는 높은 수준의 자기 결정력을 가진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덜 받고, 마케팅 전략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창업 기회를 추구할 때 계획 및 전략적 사고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견은 농산업 창업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정책 입안자, 교육자 및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첫째, 조사 대상 그룹의 특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연구 범위를 확장시켜 농산업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도록 권고한다. 둘째,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변수가 절대적인 측정항목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탐색하는 향후 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정도를 조절변수로 사용했으나 제 삼의 매개변수

를 도입한 매개모형의 접근을 제안한다. 또한 새로운 매개 변수와 조절변수가 포함된 조건부과정보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권장한다.

참고문헌

- 강병승(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 효능감, 기회 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강신수·서운정·김명중(2020). 관계형성역량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분석. *벤처창업연구*, 15(1), 113-123.
- 김나랑·홍순구·이현미(2014). 근거이론에 기반한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33-45.
- 김성환·북경수·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5-26.
- 김영태(2022). *시니어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기능별 조절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김정수(2022).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의 외식 창업지역량이 창업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25(5), 83-105.
- 변지유·이일한·이상희(2021).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6(6), 213-236.
- 서성열(2018).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송창운(2021).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 직장인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신향숙(2021).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양준환(2015).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0(1), 25-45.
- 이성택(2017).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활용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 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윤석(2021). *대학생의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재열·하태관(2022). 시니어의 성장·고정 마인드셋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6), 89-104.
- 정도채·박혜진(2022).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농정포커스 272 번)*. 전라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영조·이보영(2016). 사회적 환경이 대학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17-25.
- 편지은(2022).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 과제: 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이슈와논점 1966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한미경(2022).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

- 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Bian, J. Y., Lee, I. H., & Lee, J. H.(2021).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6(6), 213-236.
- Cho, Y. J., & Lee, B. Y.(2016). A study on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17-25.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Han, M. K.(2022).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Potential Entrepreneurs' Intentions of Business Cr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business creation's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Jeong, D. C., & Park, H. J.(2022). *2021 Agricultural and Rural Public Attitudes Survey (Agricultural Focus No. 272)*. Jeolla Provin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Kim, J. S.(2022). Effect of Culinary & Foodservice Major University Students' Restaurant Business Entrepreneurship on Their Business Start-up Preparation Behavior and Start-up Intention: Self-efficacy Control Effect.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25(5), 83-105.
- Kang, B. S.(2020). *Impacts of Seniors' Entrepreneur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Opportunity Awareness, and Startup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 Kang, S. S., Seo, J. W., & Kim, M. J.(2020). The Relations Between Relationship Building Competenc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113-123.
- Kim, N. R., Hong, S. G., & Lee, H. M.(2014). Revitalizing the Young Venture Entrepreneurship through Grounded Theor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3), 33-45.
- Kim, S. H., Bok, K. S., & Par, J. C.(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 Kim, Y. T.(2022). *The Effect of Senior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Lee, J. Y., & Ha, T. K.(2022).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Seniors' Growth-Fixed Mindset and Entrepreneurial Abili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6), 89-104.
- Lee, S. T.(2017). *An Influence on Onlin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latform Utilization to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Degre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Lee, Y. S.(2021).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Luthje, C., & Franke, N.(2003). The 'making' of an entrepreneur: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 & D Management*, 33(2), 135-148.
- Mitchelmore, S., & Rowley, J.(2010).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ment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16(2), 92-111.
- Pyeon, J. E.(2022). *Major Response Policies and Future Challenges to Changing Farm Demographics: Focused on addressing the agricultural workforce shortage and rural depopulation crisis(Issues and Perspective No.1966)*.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eo, S. Y.(2018). *Influence of Youth's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Shin, H. S.(2021). *Effects of Active Senior's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Efficacy,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 Song, C. W.(2021). *Structural Relationship of Variable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Employe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Yang, J. H.(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Contextu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 Business Education Review*, 30(1), 25-45.